

□ 우리 경제·사회 얼마나 변했나

97.6.18

65년 1만원=96년 20만9천원 도로 8.8m마다 자동차 1대꼴

통계청 발표

자동차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도로에는 8.8m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서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 65년 1만원을 주고 산 물건을 96년에 사려면 20만9천원을 줘야할 정도로 물가가 올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사회 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로 총길이는 지난 70년 4만km에서 95년에는 7만4천km로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1km당 자동차 대수는 3.1대에서 무려 1백14대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가 70년 2만9천대에서 96년말 현재 6백65만3천대로 무려 2백32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65년 당시 1만원의 화폐가치는 96년 생산자물가로 따져 7백76원, 소비자 물가로는 4백80원에 지나지 않는다. 뒤집어 말하면 65년에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품목을 96년 구입하고자 한다면 생산자물가로는 12만8천9백원, 소비자물가로는 20만8천5백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산술 소비는 70년에 비해 약간

줄었으나, 담배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살 이상 국민 1인당 국내생산 주류 연간 소비량은 70년 94.2ℓ에서 95년 현재 91.3ℓ로 조금 줄었다. 반면 1인당 연간 담배소비량(외산 포함)은 70년 2천7백개비에서 96년 현재 3천2백개비로 증가했다.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6년 현재 2백15만원으로 70년 2만8천원에 비해 명목상 76배, 가계지출은 2만7천원에서 1백60만원으로 60배 증가했다.

무선호출 가입자는 82년 2백24명에서 96년 1천2백69만명으로 인구 4명당 1명, 이동전화 가입자는 3백50명에서 3백18만명으로 인구 1백명당 6명으로 급증했다.

국민 한사람이 낸 보험료는 95년 연간 1백3만원으로 70년 8백96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95년의 경우 생명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76.4%를 차지해 보험 가운데 가장 많았다.

국민1인당 조세부담액은 97년 2백6만원으로 70년에 비해 명목상 1백68배 증가했으며, 조세부담률도 70년 14.6%에서 97년 21.6%로 7.0%포인트 높아졌다.

유상규 기자